<라 살레뜨의 성모> (LA SALETTE)

(프랑스)

1.발현

1846년 9월 19일(성모 칠고 축일 전 날), 한 "아름다운 부인"이 프랑스 알프스 산의 라 살레뜨(해발 6,000피트) 근방에서 양떼를 돌보던 두 어린이에게 발현하셨다. 막시밀 지로는 11세이고, 멜리니 칼바는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은 꼬르(이세르)빙아세 이곳의 두메 산골로 와서 남의 양을 치고 있던 중이었다. 어느 "부인"이 처음에는 바위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가, 일어나서는 프랑스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씨는 그 지방 말투였으나 부드러웠고, 여전히 우시는 모습이었다. 그런 뒤, 그 부인이 한발짝 다가 서시는 듯 하더니, 곧 밝은 빛 속으로 사라지신 것이다. 그 부인이 감싸인 밝은 광채는 망치와 못 그리고 쇠사슬과 장미꽃들로 둘러싸인, 그녀의 가슴에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듯 하였다.

만 15년 후인 1851년 9월 19일, 그레노블의 주교 부뤼아르는 이 사건과 관련되는 증언들과 메시지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교서를 발표하고 이 발현은 모두가 사실임을 선언하였으며, 신자들은 의심 없이 믿어도 좋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이 발현 당시부터 물밀 듯 밀려 오던 신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처음부터 순례자들은 발현 장소로 오르는 좁은 산길을 꽉 메울 지경이였는데, 그들은 이 부인을 "죄인들의 화해자"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한적한 산꼭대기에는 성모님의 명에 따라 큰 성당이 들어섰고 또 숙박소도 세워졌다. 그 후 이 발현 이야기는 신문과 다른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로 알려졌고, 신자들의 회개 운동이 먼저 그 지방에서 일어나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어서 1872년에는 라 살레뜨가 세계적인 순례자가 되었다.

라 살레뜨의 성모님은 기도와 회개 그리고 봉헌의 큰 물결을 이루게 하였다. 기도와 회개 그리고 봉헌 운동은 비단 개인에게만 그친게 아니라, 수도회와 수도원 단위, 신자와 신자 단체 단위로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신자들은 어디서나 그 영향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성지 봉사자들은 수도회나 선교회로 발전하여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들 가운데에 "라 살레뜨의 성모 선교회"가 가장 돋보인다..

라 살레뜨의 성모님으로 부터 깊은 감명을 받은 성인들, 사목자들, 그리고 저술가들과 일반 신도들은 수 없이 많은데, 돈 보스코의 성인, 아르스의 성자 요한 비안네, 베드로 에이마르, 막달레나 소피아 바라, 프레보스르 신부 그리고 뒤팡루프 주교, 블로와, 위스망, 쟈끄 마리땡, 프시카리, 뽈 끌로델, 프랑소와 모리악 등이 손꼽히는 인물들이다. 오늘날 "라 살레뜨는"는 성지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 "작은 라 살레뜨"성지가 개발되어,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사랑의 눈물로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은 마리아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며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

2. 메시지

라 살레뜨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즉 인류 구원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협력을 잘 표현해 주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들의 화해자다"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세상 것에 너무 빠져서 하느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금육이니 금식은 잊은지 오래다.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란다. 그러니 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하느님과 화해하라. 내 말을 들으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큰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이어서 그 부인은 말씀하셨다. 프랑스와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면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어 밀을 심어도 다 말라 타 죽어버릴 것이고, 포도는 썩어 무너질 것이며, 가축들도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역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말씀대로 흉년이 들고, 이윽고 1870년에는 보불전쟁까지 터지자, 그때서야 "라 살레뜨"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회개의 순례객들이 끊이질 않고 몰려 왔다.

그 후 막시민과 멜라니아는 성모님이 천상으로 데려 가셨고, 이 아이들의 유해는 라 살레뜨 성전에 안장되었으며, 메시지를 받은 곳에서는 그때 그 모습을 재현시켜 놓았고, 성모님이 앉아 우시던 바위 밑에는 기적의 물이 흘러내린다. 이 곳이 라 살레뜨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이다.

3.메시지의 의의

성모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첫째, 라 살레뜨의 성모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재삼 음미하게 한다. 그 메시지 자체는 19세기 프랑스와 인접 지역들의 재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절망적인 듯 하지만, 당신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동참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망각한 현대인에게 다시금 믿음을 소생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중재가 크게 기여함을 우리에게 밝힌다.

둘째,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해방을 호소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낼 것을 요구하신다. "성자의 이름:과 "그분의 팔"을 신뢰하라고 이르신다. 또 시대의 징표를 읽고, 회개 생활을 재촉해야 함을 일깨우신다. 이 회개 생활 가운데, 특히 마리아 어머니가 그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의 일상적인 기도생활, 주일 미사 그리고 사순절을 엄수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인에게 전하라는 요구도 내포되어 있다.

셋째, 이 메시지는 인생의 넓은 길을 외면하고 "좁은 길"을 따르라고 하신다. 그래서 해발 1,800m의 산곡대기에서 발현하신 듯하다. 복되시고 아름다우신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고린5,20)하며 애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이 곧 화해임을 일깨우시는 것이다.

라 살레뜨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